

“기적을 불러온 큰 믿음 - 수로보니게 여인”

마태복음 15:21-28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는, 두로 지방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지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즉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귀신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딸을 고쳐 주시고자 두번이나 요청을 하지만 그 여인의 요청은 번번히 거절당합니다. 한번은 아예 요청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두 번째는 요청에 대해 모욕적인 대답으로 그녀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런 모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렸고, 결국 딸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께서 알아서, 언젠가 고쳐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실한 신앙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인해 마침내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응답과 해결을 예수님으로부터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7 장에서 이 여인을 소개할 때,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 여인은 헬라 종교의 전통을 받아들여 잡다한 우상을 섬겼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이 섬기는 우상들에게도 병의 치유를 의탁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의미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당면한 인생의 문제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종교,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는 결국 악세서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 단지 몸만 교회에 오고 갈 뿐,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신앙인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속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보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예수님께 나아가 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냥 자신이 있던 자리에 머물면서 마음으로만 그 믿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걸음을 옮겨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믿는다면 몸을 움직여 믿음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결코 밖에 내리고 있는 비를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몸을 움직여 그 분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따라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2. 예수님의 영적 권세를 인정해야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에는 두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주’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마치 부부 사이에만 ‘여보’라는 단어를 사용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사용했던 호칭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왕은 단순히 정치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의 연약함을 치유하고 노예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영적인 의미의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방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이런 의미의 호칭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에게 있는 영적인 권세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속에 들어갔던 귀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귀신을 쫓아 내거나 병을 치료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적 권세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3. 예수님 사랑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표시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딸의 귀신 들림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지만, 무참히 거절당하고 맙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마 15:24)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비로소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뛰어 나와,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고 그 분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라며 재차 간청합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서는 가혹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는 주지 않는다”

여기서 자녀는 택함 받은 백성을, 그리고 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을 의미합니다. 또, 떡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음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스러기는 떡에 비할바는 아니지만,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감동’과 같은 커다란 은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딸이 살 수만 있도록 병만 고침받고자 하는,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옹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마 15:27)

이 여인의 놀라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마 15:28)

그렇다면, 큰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큰 믿음은 믿고 있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은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실제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그대로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분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매달릴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의 시간

1. 오늘 성경 말씀의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만히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예수님은 매몰차게 여인의 간청을 거절하십니다. 만약 내가 이런 상황을 경험한다면,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서로의 생각을 진솔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3.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구조건을 다짜고짜 늘어놓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설득력있는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반응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나의 기도제목들을 어떻게 하면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그렇게 기도하며 목장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간청을 거절하신 것과 같이 우리 인생에도 어려운 상황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큰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더디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4.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은 이 여인의 말씀을 의지한 기도였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요구사항을 다짜고짜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거절에 대해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다시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조건 병고쳐달라고 떼를 쓰듯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옹소이다 마는 개들도 상 아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며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 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사 1:18)

하나님께서서는 함께 의논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일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리이러한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큰 믿음을 소유하시는 성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